

전북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연구

최은령*

<목 차>

- I. 머리말
- II.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기법
- III.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시기
- IV. 조성배경
- V. 맺음말

국문요약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전북 남원시 실상사 극락전에 독존으로 모셔져 있는 121cm의 등신불이다. 과거에는 목조불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육안과 X-ray조사에서 천과 옷칠을 겹쳐 만들어 불상의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中空)의 건칠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상사 건칠불상은 중앙계주와 백호, 눈동자를 수정제로 감입하였고 양손은 목재로 만들어 불신에 끼웠다. X-ray사진에서 건칠층은 두부에 12매, 두께는 머리 0.9~1.0cm, 몸 0.8~1.0cm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수치적 데이터는 현재까지 조사된 한국 건칠불상의 공통된 특징으로 이해된다. 즉 한국의 건칠불상은 대체로 10매 이상의 건칠층으로 만들어졌고 그 두께는 머리와 몸이 균일하며 1cm내외라는 점이다. 일본의 건칠불상과 비교해서, 비교적 많은 포와 칠을 사용하였고 건칠층은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의 목덜미 대의자락과 팔, 다리의 옷주름선 등은 매우 두툼하게 표현되었는데, 건칠층으로 성형한 후에 칠과 목분 혹은 토분을 혼합하여 외형을 양감있게 표현하였다. 불상 저부의 복장공을 통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中空)의 상태였으며 내부에는 마포의 직조결, 외부보다 더욱 날카로운 옷주름의 요철(凹凸)을 육안으로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내부는 다른 재료로 표면정돈을 하지 않았고, 내부에 있던 흙을 제거하면서 굵힌 자국과 조밀한 옷주름 사이에는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제거하지 못한 소량의 흠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한국 건칠불상의 제작기법 특징을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이다. 실상사 건칠불은 10매 이상의 건칠층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부는 중공상태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 전혀 없고, 외부보다 더 날카로운 옷주름의 요철선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의 건칠불상에서 내부에 반드시 심목을 넣고, 외부의 세부성형에 다량의 목시칠(木屎漆)을 사용하는 것과는 제작기법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실상사 건칠불을 비롯하여 한국의 건칠불상은 1차 작업인 흠으로 불상을 만들 때 세부표현까지 완벽하게 완성형으로 조성하고, 그 위에 마포를 칠로 붙이는 건칠층을 10매 이상 작업하여 더욱 견고하게 완성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불상 내부에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을 넣지 않아도 오랜 세월 원형을 잃지 않고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도상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신체는 늘씬한 체구에 가슴의 양감을 강조하고 양발을 드러내어 결기부좌하고 있다. 상호는 가름한 둥근형에 이목구비가 부드럽고, 높은 육계와 둥근 중앙계주를 갖고 있다. 착의법은 안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친 변형통견식이며 승각기와 군의, 군의를 묶은 띠매듭을 하고 있다. 특히 착의표현은 매우 두꺼운 옷을 걸친 것처럼 보이는데, 옷주름은 입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왼쪽 팔 정면에 역삼각형의 대의끝단과 측면으로 3단의 옷주름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얼굴 및 신체, 착의법 표현에서 나타나는 주요특징은 고려 후기 14세기에서 조선전기 15세기의 여래상들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고려 후기 여래상에 비해서는 옷주름의 형식화, 도식화가 진행되어 고려 후기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전기 15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배경에는 조선시대에 와서 중창과 쇠퇴가 반복되던 중에 1468년에 폐사, 1679년부터 재건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적기 내용을 근거로 1468년 폐사이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서도 조선전기 15세기와 일치한다. 또한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전남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남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재료 및 제작기법, 양식적 특징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것은 제작시기와 함께 동일한 제작자 혹은 제작군에 의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쌍계사 건칠상과는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동일하다. 이 세 불상의 공통점과 함께 현재 전라도지역에 분포하는 건칠불상의 수량이 많다. 이러한 점은 칠의 주요 산지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도지역은 우리나라의 목칠공예로 유명한 곳이다.

전북 남원 실상사는 구산선문의 천년고찰로 임진왜란 이후 전각의 소실과 중건이 거듭되어 1996년부터 학술적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무쪼록 실상사가 창건당시의 옛 모습을 찾아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복원을 기대한다.

주제어 : 실상사, 건칠불, 아미타여래좌상, 중공, 소조불, 전라도, 옷칠, 마포, 복장, 감입, 조선전기, 중창

I. 머리말

실상사는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기슭의 평지에 위치한 구산선문의 천년고찰이다. 통일신라시대 창건 이래로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개산한 최초의 선종사찰로 번창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전각의 소실과 중건이 거듭되어 1996년부터 창건당시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학술적 발굴조사가 시행되고 있다.¹⁾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극락전에 독존으로 모셔져 있으며(도 1, 도 2) 과거에는 목조불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육안과 X-ray조사에서 천과 옷칠을 겹쳐 만들어 불상의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中空)의 건칠불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20여구의 건칠불상은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개별 작품의 크기나 형식에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다. 건칠불상은 작품수가 적고 제작과정과 재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재질의 불상에 비해 다양한 연구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건칠불상에 대한 연구는 작품분석을 통한 미술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X-ray조사를 바탕으로 제작기법에



도 1.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像高 121.0cm, 전북
남원 실상사

도 2. 실상사 극락전, 조선후기, 전북 유형문화재 제45호

¹⁾ 1995년부터 실상사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절 주위의 경작지를 매입하여 56,198㎡의 옛 절터를 회복하였고, 1996~2005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창건 당시 가람의 규모와 역사적 변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實相寺 : 발굴중간보고』, 1999 ; 『實相寺Ⅱ : 발굴조사보고』, 2006.

관한 조형복원 접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²⁾

이 논문에서는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기법을 살펴보고 조성시기와 그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논문의 전개는 II장에서 실상사 건칠불상의 복장과 X-ray조사에 의한 내부구조와 제작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건칠불상과 제작기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실상사 건칠불상의 상호와 착의법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 제작시기를 추론하고, 전라도지역 건칠불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실상사의 연혁과 문헌기록을 토대로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조성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기법

건칠불상은 마포와 칠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불상으로 말하며, 일반적으로 내부가 비어있어 가벼운 점이 특징이다. 건칠불상은 일본에서 천평시대(天平時代)에 흥복사를 포함하여 동대사 등 국가의 대찰에 많이 조성되었으며, 평안시대(平安時代) 이후에는 제작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건칠불상은 모두 불상의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中空)의 건칠불상으로 확인되었다.(표 1) 건칠불상의 제작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나무를 새끼줄로 감고 점토를 붙여 불상의 형태를 만든다. 그 위에 마포와 칠을 수차례 겹쳐 발라 불상의 세부적인 형태를 만드는데, 이 과정이 건칠불상

2) 최은령, 「조선초기 건칠불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대세지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대세지보살입상, 『동악미술사학』2, 2001, 21~35쪽; 韓國における乾漆佛像: 全羅南道竹林寺藏の乾漆阿彌陀如來坐像について, 『デアアルテ』19, 九州藝術學會, 2003, 17~30쪽; 「한국의 건칠불상 연구: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불교미술사학』5, 2007, 133~177쪽; 「한국 건칠불상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임석규, 「한국 건칠불상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 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102~115쪽;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불상 X-ray 조사보고서 I: 건칠불』, 2008; 임남수, 淸涼寺 傳樂師如來坐像考, 『민족문화논총』43, 2009, 671~696쪽; 이희정,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에 대해」, 『문물연구』16, 2009, 53~76쪽; 鄭至娟, 「韓國の全羅道羅州·南原地域の乾漆仏について」, 『年報2008』, 東京藝術大學 美術研究科 文化財保存學 保存修復彫刻研究室, 2009; 「韓國夾紵佛の技法的研究: 大倉集古館藏の脱活乾漆菩薩坐像の模刻を中心に」, 東京藝術大學 美術研究科 博士學位論文, 2010; 최주연, 고려 후기 협저보살상 연구: 남송대 조각양식의 수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표 1. 한국의 건칠불상 목록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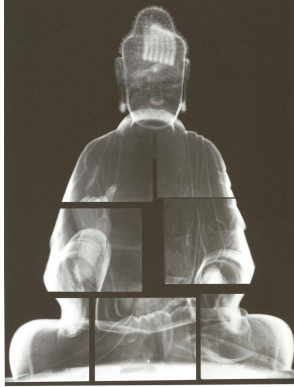
지역	명칭	소장처(현재)	상고(cm)	조성시기
강원도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강원 양양 洛山寺	112.0	조선전기
경기도	청원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기 안성 淸源寺	120.0	고려후기
경상도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경북 봉화 淸涼寺	91.5	고려후기
	청량사 건칠보살좌상	경북 봉화 淸涼寺	76.5	고려후기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북 구미 大菴寺	105.5	조선전기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경북 영덕 莊陸寺	76.8	1395년
	서악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북 안동 西岳寺	104.5	1567년
	서악사 건칠관음보살입상	경북 안동 西岳寺	108.0	1567년
	서악사 건칠대세지보살입상	경북 안동 西岳寺	107.0	1567년
	기림사 건칠관음보살좌상	경북 경주 祇林寺	93.4	1501년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대구 把溪寺	101.0	1447년(重修)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	경남 김해 원명사	75.5	1336년(추정)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남 하동 雙溪寺	155.0	조선전기
전라도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북 남원 實相寺	121.0	조선전기
	실상사 건칠관음보살입상	전북 남원 實相寺	148.0	조선전기
	동아대박물관 건칠세지보살입상	부산 동아대박물관	147.0	조선전기
	선국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북 남원 善國寺	132.0	고려후기
	심향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남 나주 尋香寺	136.0	고려후기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전남 나주 佛會寺	128.0	고려후기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전남 나주 竹林寺	116.0	조선전기
충청도	보덕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충남 예산 報德寺	94.3	조선전기
기 타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24.0	고려후기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50.6	조선전기
	大倉集古館 건칠보살좌상	일본 東京 大倉集古館	133.0	고려후기

의 외형을 이루게 된다.⁴⁾ 불상의 형태를 이룬 마포와 칠이 건조된 다음, 내부에 있던 점토와 나무들을 제거한다.⁵⁾ 불상의 외면은 칠과 목분 혹은 토분으로 섞은

3) 최은령, 앞의 논문(2001, 2003)에 수록된 <한국의 건칠불상 목록>을 기본으로 문화재청·조계종 문화유산발굴단의 건칠불상조사결과를 재정리하여 작성하였다. 최근 목록에 수록되어있는 건칠불상들이 문화재지정 및 등급조정심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관심 속에서 새로운 건칠불상 자료의 출현도 예측된다. (표 2)의 No.8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은 유물번호 덕5547작품이며, No.10은 유물번호 2253작품이다. 특히 No.8 국립중앙박물관 건칠보살좌상과 No.9 大倉集古館 건칠보살좌상은 크기, 형태, 특징 등에서 공통점을 보여 두 작품이 원래 삼존불의 양 협시보살상으로 제작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No.6 실상사 아미타여래상은 최근까지 목조불상으로 전하던 작품이었으나, 본 연구자는 No.14, No.15와 함께 아미타삼존불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목조불이 아닌 건칠로 추정하였다. 최은령, 앞의 논문, 2003, 주 17.

4) 건칠기법의 불상에서 마포와 칠을 바르는 횟수와 두께가 불상의 견고함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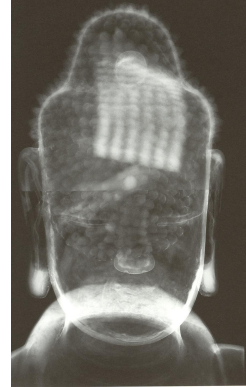
5) 현존하는 한국의 건칠불상 가운데 X-ray조사가 이루어진 작품은 모두 불상의 내부가 비어있는 일본에서 말하는 탈건칠기법(脫乾漆技法)으로 제작되었으며, 불상의 내부는 점토를 제거하여 깨끗한 상태이다. 일본의, 탈건칠불상 중에는 점토를 제거하고 불상의 형상을 따라 정교하게 제작된 나무들을 다시 내부에 넣어둔다. 이것은 탈건칠기법의 경우 내부가 비었기 때문에 오랜



도 3.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X-ray사진 정면



도 4. X-ray사진 우측면



도 5. X-ray사진 두부

반죽으로 세부적인 외형을 다듬어 마무리하게 된다.

실상사 극락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내부조사와 X-ray조사에서 건칠불상으로 확인되었고, 중앙계주와 백호 및 눈동자는 수정제이고 양손은 목재인 것이 밝혀졌다.⁶⁾(도 3, 도 4, 도 5) X-ray사진에서 건칠층은 두부 12층, 건칠층 두께는 머리 0.9~1.0cm, 불신은 0.8~1.0cm로 확인되었다.⁷⁾ 특히 X-ray사진에서 중앙계주 뒤쪽에 사각형이면서 뒤로 말린 물체가 흰색으로 분명하게 보이는데, 육계 쪽으로 끝이 퍼져 겹쳐진 듯한 모양이지만 재질과 용도를 알 수 없다. 또한 두부에는 후두부 쪽으로 실선이 확인되는데 불상의 내부에 있는 점토를 제거하기 위해 절개한 흔적으로 파악된다.⁸⁾

귀는 건칠층으로 만들어졌고 귓불이 흰색으로 확인되어 내부에 점토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눈동자는 표면에 채색되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

시간이 지났을 때 형태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적인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6) 수정과 흙은 투과율이 낮아 X-ray사진에서 희게 드러난다. 임석규, 앞의 논문, 2007;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8.

7) 임석규, 앞의 논문, 110쪽, 표 2 참조; 정지연, 앞의 논문, 41쪽에는 두부와 상반신의 부분은 7층, 하반신의 옷 부분은 8층이 확인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 건칠 층의 매수 확인조사에서 차이를 보인다.

8) 정지연, 앞의 논문, 2009, 41쪽에 의하면 두부의 절개선이 전두부의 육계에서 후두부의 목과 닿는 부분까지에 이른다고 한다.

9) 전남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X-ray사진에서도 실상사와 동일한 귓불의 흰색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죽림사불상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양 귓불에 제거하지 못한 점토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실상사 건칠불상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정지연, 앞의 논문, 2009, 38쪽.

나 타원형의 수정을 감입하였다. 양손은 목조이며 팔 아랫부분까지 연결되어 불신에 고정되어있고 금속제의 못을 확인할 수 없다. 목덜미의 대의자락, 팔과 다리의 옷주름선 등은 육안으로도 매우 두툼하게 표현되었는데, X-ray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흰색층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점은 전체적으로 건칠층으로 성형한 후에 세부적인 외형을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한 칠과 목분 혹은 토분을 혼합한 층으로 생각된다.



도 6.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저부목판



도 7.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내부

X-ray조사에 의해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기본적인 제작기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복장 내부를 확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저부는 2매의 목재를 붙여 저판으로 마감되어있고 엉덩이쪽 1매의 목판 중앙에 방형의 복장공을 두었다(도 6). 저판은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1/3 지점에 밝은 색의 나무결이 드러나는 목판 1매와 나머지 부분에는 짙은 갈색의 옷칠을 바른 목판 1매로 마감되었다. 옷칠을 한 목판에서 일부 표면 칠이 벗겨진 사이로 마포의 결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저판은 불상과 같은 시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한편, 옷칠을 하지 않은 목판은 현대의 것이며 불신의 건칠층과 목판의 구분이 확실하여 마포의 매수가 확인된다. 마포는 8~9매, 1.5cm의 두께이고 가장 바깥층은 섬유성분이 아닌 목분 혹은 토분을 혼합한 층으로 두께감이 있다.

저판의 복장공을 통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¹¹⁾ 복장물이 들어있었지만

10) 저판의 표면에 마포를 바른 이유는 불상과 저판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X-ray사진에서도 1차적으로 못을 이용해 고정했지만 건칠불상의 하단부 단면은 섬유층이 노출되므로 2차적으로 불상과 저판을 마포로 감싸 마무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부공간에 여유가 있었고 복장물을 모두 꺼낸 뒤에 목구멍에도 다라니를 끼워 넣어둔 것을 알 수 있었다(도 7). 경부를 제외한 불상내부의 복장물을 모두 꺼낸 뒤, 불상 내부는 깨끗하게 빈 상태이고 양팔의 목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꽂혀 있다. 양팔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불신과 손목이 연결되는 부위를 고정시켰다(도 8).



도 8.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내부 팔 목심 부분

내부 표면은 마포의 결, 옷주름선 요철을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는데 다른 재료로 표면처리를 하지 않았고 표면에는 굵은 자국이 확인된다. 내부의 흙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으로 생각되며, 특히 손목의 옷자락과 같이 좁고 조밀한 옷주름에는 점토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인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내부조사를 통해서 내·외면이 동일한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성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칠불상의 제작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작품이다. 특히 외면보다 내면의 옷주름 요철면이 더 조밀하고 분명하여, 건칠상을 성형한 후에 목분 혹은 토분 혼합층을 두텁게 발라 완성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내부 표면상태로 봐서 건칠상에서 점토를 제거한 방법과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복장조사를 실시한 결과,¹²⁾ 발원문이나 후령통과 같은 중요한 복장물은 없었고 날장의 범자인본 다라니와 경전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도 9). 불상 내부는 공간의 여유있게 복장물이 들어있고 불상의 경부(頸部)에 경전 인쇄본이 단단히 막혀있는 상태여서 두부(頭部)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현대의 금강경 3권과 염주, 오색실에 싸인 오곡, 오색실, 작은 비단조각 등도 있었는데 복장물은 가까운 어느 시기에 간소한 절차로 추가 납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11) 복장공은 16×11cm의 방형이고 목판 두께는 3cm이다.

12) 2012년 5월 21일 실상사 극락전에서 실상사의 圓默스님(부주지)과 오선미님(문화재·불사 담당)의 주관 아래에 본 연구자와 영남대학교 임남수교수님이 참여하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학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불상의 복장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복장물은 그대로 재납입하였다.



도 9.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도 10. 복장출토 「實相寺極樂殿阿彌陀佛改金佛事記」, 한지묵서, 32.5×239cm

이상의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 가운데에서 불상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1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實相寺極樂殿阿彌陀佛改金佛事記”¹³⁾라고 시작하는 기록문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가지런한 서체로 한지에 묵서되어있다.(도 10) 내용은 1979년(佛紀 2523년) 3월11일 실상사 극락전 아미타불을 개금불사하며 금강경3권과 오색천, 오색실, 약초, 관세음보살을 모신 청자함 등을 새롭게 복장하였고 住持 智霞, 證明 杲珊을 위시하여 200여명이 시주에 동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1979년 도에 새로 넣은 복장유물 외에

338년 전의 복장 가운데에서 “金堂佛像造成結緣秩”(崇德6년 3월 7일, 1641년)과 오색천, 오색실, 法華經卷一, 十地論 등은 따로 보관하고 개금불사를 회향한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실상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 중, 범자인

13) 한지는 밝은 백색이며 2매를 길게 이어 붙여 돌돌 말려있었다. 규격은 32.5×239(향좌 111+128)cm이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實相寺極樂殿阿彌陀佛改金佛事記」

九山禪宗가운데 最初의 山門인 智異山 實相寺는, 오랫동안 完全頽落된채 疏外되어오던중 지난, 2년간 國庫補助 四阡餘萬원을 들여 藥師殿, 極樂殿 冥府殿 등이 完全重建되었고 이에 뜻, 있는 四部大衆의 도움으로 阿彌陀佛(三三八年前紙佛)의 改金佛事를 하게 되었다. 腹藏은 그대로 保存되어, 있었으며 새로 金剛經三卷과 오색천, 오색실, 藥草, 관세음보살을 모신 청자함 등을 腹藏하였다. 三三八年前 腹藏中 崇德六年辛巳三月初七日, 金堂佛像造成結緣秩(雲日比丘等六四〇여명同參), 오색천, 오색실, 法華經卷一, 十地論 등은 後人, 들의 教育과 通史的인 證明, 考察을 위하여, 따로 保管하였으며 이에 원만히 改金佛事를 廻向한다. 佛紀二五二三年 三月 十一日 住持 智霞 謹誌, 同參施主秩, 比丘 慧惺 眞徹 能慧 泰日 比丘尼 法俊 大仁, 世燈 紋秀 正珩 智首 서울시 ... 대구시 ... 부산시 ... 진주시 ... 마산시 ... 남원군 ... 함양군 ... 칠곡군 ... 청주시 ... 證明 杲珊,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본다라니에는 ‘佛紀二五二三年己未二月十七日發見(338年前作品)’이라고 주석으로 날인되어있다.¹⁴⁾

실상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물에 관한 기록을 정리해보면, 1979년 2월 17일 복장물이 발견되었고 3월 11일 개금불사가 이루어졌다. 3월 11일 개금불사 때 당시 작성된 개금불사기와 더불어 새롭게 복장물을 추가납입하고, 원래 복장에 있던 주요 유물들은 복장에서 꺼내어 따로 보관하였다. 따라서 불상 복장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1979년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개봉 이전부터 납입되어있던 다라니류들이고 또 하나는 1979년 개금불사 때 새로 추가한 것들이다. 1979년 개금불사기록에 적혀있던 관세음보살을 모신 청자함과 오색천 등이 현재 복장내에 없고, 복장의식과 관련된 후령통 등의 유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온전한 복장유물이 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79년 개금불사 당시 따로 보관한다고 했던 “金堂佛像造成結緣秩”과 기타유물들도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확인결과, 불상의 조성당시와 관련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며 1979년 개금불사 때 납입했던 복장물도 온전하게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금불사 때 확인했던 “金堂佛像造成結緣秩”은 정확한 내용을 현재 알 수 없지만 1641년이라는 제작년도와 640여명의 동참을 개금불사기록에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발견되었던 금당불상조성결연질이 현재 극락전의 아미타불상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상호, 착의법 등 양식적 특징이 1641년경의 17세기 불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양식적 특징을 통해 제작시기를 논의하기로 하겠다.

Ⅲ.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시기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극락전에 봉안되어있는데, 극락전은 실상사의 천왕문에서 왼편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경내에서도 중요문화재가 위치

¹⁴⁾ 범자인본다라니의 외곽에 고무인으로 찍은 것처럼 주석방향의 「佛紀二五二三年己未二月十七日發見(338年前作品)實相寺 極樂殿 阿彌陀佛 腹藏陀羅尼」가 날인되어있다. 또한 극락전의 우측벽면에 “一切如來全身舍利寶齒眞言印”이 액자형식으로 걸려있는데 여기의 하단에도 범자인본다라니와 동일한 문구가 날인되어있어 이 진언 또한 아미타여래상의 복장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11.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우측면



도 12.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좌측면

한 곳과는 다소 떨어져있다. 현재의 극락전은 순조 31년(1831)에 다시 지어진 건물로 앞면 3칸, 옆면 2칸 작은 규모의 맞배지붕이다. 본 장에서는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도상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의 여래상과 양식적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극락전의 본존불로 불단 위 팔각목조대좌에 모셔져 있다. 여래상은 120cm의 크기로 등신보다 큰 사이즈이며 곧은 자세에 어깨와 무릎너비가 균형을 잘 이루어 안정적인 모습이다.(도 11, 도 12)

불신은 가슴의 양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드라져있고, 결가부좌한 양발을 모두 드러내고 발가락까지 표현되어있다. 양손은 손목을 드러내고 긴 손가락에 손톱과 손금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있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서 들어 손바닥을 정면으로, 왼손은 배 높이에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여 엄지와 검지를 맞댄 아미타정인을 하고 있다.

얼굴은 가름한 둥근형이고 양감있는 뺨에 눈, 코, 입의 조각선이 부드럽다. (도 13) 백호는 작은 크기의 수정체를 끼워 넣었다.¹⁵⁾ 눈썹과 눈의 간격이 멀고 눈은 눈꼬리까지 곡선을 이룬다. 눈썹에서 코로 이어지는 콧날이 완만하고 코끝과 콧방울이 둥글다. 콧구멍도 표현하였다. 입술은 꼬리를 올려 미소를 띠고 있는데, 특히 아랫입술이 도톰하다. 입술 아래 턱선은 얼굴선과 조화를 잘 이루고,

¹⁵⁾ 백호에 사용된 수정류는 무생투명하며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정목 걸이나 팔찌에서 보듯이, 구슬을 연결하기 위해 가운데를 뚫은 것과 같은 형태와 유사하다.



도 13.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얼굴정면



도 14.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얼굴측면

목에는 삼도가 분명하다. 귀는 귓볼까지 귓바퀴를 길게 조각하고 귀의 근육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도 14).

나발은 이마선을 따라 정연하게 부착되어있고 나발의 끝이 뾰족하다. 머리는 육계와 경계를 분명히 하고 육계는 마치 밥그릇을 얹어놓은 것과 같이 둥글고 높게 표현되었다. 계주는 구슬처럼 완전한 원형으로 머리와 육계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나발 사이에 돌출되어 있다. 정수리에는 계주가 없다.

착의법은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상체에는 오른쪽 어깨와 팔을 덮은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쳤으며, 하체에는 가슴 아래로 내려온 승각기와 그 위에 군의를 입고 띠를 묶은 것을 알 수 있다. 여래상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두꺼운 법의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가름한 얼굴과 늘씬한 신체와는 비교된다. 대의는 목덜미에서 마치 옷깃을 세운 것처럼 두툼하게 올랐고 양어깨와 팔을 덮은 옷자락도 두껍게 겹쳐있다. 특히 좌우 손목의 옷자락과 왼팔에서 등 뒤로 넘긴 대의자락은 매우 두껍게 주름져있어 무거운 느낌마저 준다. 이러한 두꺼운 착의표현은 배 앞에서 대의 안으로 접어 넣은 편삼자락에서도 확실해지는데, 오른팔에서 내려온 두꺼운 편삼자락이 축 늘어져 대의 안으로 접혀진 모습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왼쪽 어깨에는 정면으로 역삼각형의 옷주름이 넓게 표현되어있고 측면으로 3단의 옷주름이 넓은 간격으로 있어서 다소 도식적이며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다.

양감있는 가슴 아래에는 수평의 승각기와 군의가 보이고 군의를 묶은 띠때

뒹이 표현되어있다. 균의는 수평으로 반듯하게 입은 승각기 아래로 바깥으로 조금 내어 입어서 승각기와 구별이 확연하다. 균의는 넓은 띠로 중앙에서 묶었는데, 리본형태로 매듭을 지었다. 리본형태의 균의 띠매듭은 얇은 선각으로 표현되어있어 건칠아미타불상의 다른 조각수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균의는 결가부좌한 발목에서 다리 아래로 부채꼴형태로 구불구불 펼쳐져있다.



도 15.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후면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뒷면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끈하며, 왼쪽어깨에서 내려온 대의자락이 허리높이까지 겹쳐진 형태로 넘어와 있고 오른쪽에는 넓게 접은 대의자락과 그 안에 팔꿈치부분의 편삼이 보인다(도 15).

이상과 같이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늘씬한 신체에 부드러운 조각기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상호 및 착의법의 표현에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의 아미타여래상과 상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제작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신체는 늘씬한 체구에 가슴의 양감을 강조하고 양발을 드러내어 결가부좌하고 있다. 상호는 가름한 둥근형에 이목구비가 부드럽고, 높은 육계와 둥근 중앙계주를 갖고 있다. 착의법에서는 안에 편삼을 입고 그 위에 대의를 걸친 변형통견식이며 승각기와 균의, 균의를 묶은 띠매듭을 하고 있다. 특히 착의 표현은 매우 두꺼운 옷을 걸친 것처럼 보이는데, 옷주름은 입체적이고 자연스럽다. 왼쪽 팔 정면에 역삼각형의 대의끝단과 측면으로 3단의 옷주름은 도식적으로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얼굴 및 신체, 착의법 표현에서 나타나는 주요특징은 고려후기 여래상들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다. 대표적인 작품은 충남지역의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1346년, 도 16)와 문수사 금동여래좌상(1346년, 도 17)을 중심으로 신암사 금동여래좌상(도 17),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 경북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도 18) 등이며 고려후기 14세기를 대표하는 단아한 형식의 여래상들이다. 이들 불상들의 얼굴 및 신체에서의 특징은 온화한 얼굴에 균

형잡힌 신체와 양감 있는 가슴, 그리고 머리와 육계의 분명한 구분, 둥그란 중앙계주의 표현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여래상의 신체 표현 중에서 가슴의 양감, 육계의 구분, 둥근 중앙계주



도 16.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고려 1346년, 충남 청양 장곡사



도 17. 신암사 금동여래좌상
고려 14세기, 충남 당진 신암사

를 표현한 점은 조선시대 16세기의 불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시대성을 반영한 조형미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착의법에서는 고려후기 14세기 여래상과 비교해 변형통견식으로 입은 방법과 균의를 묶은 띠매듭 표현까지도 유사하다. 고려후기 14세기의 여래상과의 차이점은 대의자락을 왼쪽 어깨에서 내려 오메가(Ω)형으로 넓게 접혀진 형태이지만, 실상사 여래상은 완전한 역삼각형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왼팔의 측면에도 대의자락이 3단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져있어 옷주름이 형식적이며 도식적으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8.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고려 14세기, 경북 문경 대승사

한편, 조선전기 15세기 여래상의 착의법은 두꺼워진 옷과 간략화된 옷주름 표현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가슴원편에 눈에 띈던 승각기 금구장식은 사라지고, 승각기는 균의 위에 완전히 수평으로 표현되어 균의와 구분이 모호해진다.

이러한 착의법의 특징은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앞서 확인한 바이며 경북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도 19), 전남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76년 추정, 도 20),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82년, 도 21) 등 조선전기 15세기를 대표하는 불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조선시대 불상들은 앞선 고려후기 불상과 달리, 수인에서도 왼손의 위치가 무릎 앞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알



도 19.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조선 1458년, 경북 영주 흑석사 도 20. 무위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조선 1478년, 전남 강진 무위사 도 21.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조선 1482년, 국립부여박물관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전기 15세기 불상들의 특징은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고려 후기 여래상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전기 15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조각가의 개성과 재료의 특성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IV. 조성배경

현존하는 자료 가운데 실상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智異山實相寺史蹟』이 남아있어 전체적인 역사를 남겨주고 있다.¹⁶⁾ 주요 내용은 위치, 명칭, 연혁, 종파, 고승, 당우, 불상 및 귀중품에 관한 기록 외에도 實相寺重興事蹟源流圖說, 智異山實相寺重興事蹟時序 등고 금당, 부도전 등의 증 건기이다.

연혁조에서는 당초 도선국사의 창건으로 알려졌던 사실을 「所撰梵音集禪門祖師禮」의 기록 등을 통해 신라 흥덕왕3년(828) 洪陟國師가 창건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당시 흥척국사가 실상사, 즉 선종으로서의 실상선문이 시작되

¹⁶⁾ 김영수, 智異山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108, 한국미술사학회, 1970, 18~26쪽; 『智異山實相寺事蹟(下)』, 『考古美術』109, 한국미술사학회, 1971, 20~29쪽. 또 다른 자료 『實相寺第三創事蹟記』는 1793년(崇禎紀元後三癸丑)에 작성된 것으로,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사찰에서 복사본(가로25, 세로39cm)을 보관하고 있다.

는 것에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은 확실하다. 실상사가 확장되는 시기는 2대 조사인 수철화상 때이다.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에 따르면 지리산의 지실사를 개인적으로 쌓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시기는 837~860년간의 일로 흥척 국사와의 관계를 볼 때 당시 실상사의 이름이 지실사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 실상사로 개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⁷⁾

이후 사적기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기록으로는 고려중엽에 조계종 실상산과로 개칭하였는데 이는 당시 대각국사 의천이 개창한 천대종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宋建災(1127~1130년)간에는 보월화상이 重葺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수철화상이 중창 후 약 300년이 지나서 다시 대대적인 중창을 하였고 현재 조사된 목탑지도 이 당시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중종25년(1530)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 雲峰古蹟條에 “원수사 남쪽으로 5리 떨어진 곳의 실상사 옛 터에 고려승 보월의 탑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⁸⁾ 따라서 1127~1130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중창된 사실이 400여년을 흐르면서 당시에는 폐사가 되었거나 그 사세가 극도로 약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유학자들이 남긴 문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선조연간에 간행된 玉溪 盧禎의 『玉溪集』에는 1557년에 실상사에서 모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양대박의 폐사기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¹⁹⁾ 다만 노진의 문집에서는 실상사란 명칭만 기록하고 있어 실제 실상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없다. 실제 실상사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한 기록은 靑溪 梁大樸이 남긴 『靑溪集』 중 1565년의 실상사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실상사의 옛 터를 찾으니 절이 폐사된지 이미 100년이 넘었다. 담은 무너지고 초석은 흩어져 개암나무와 가시나무 사이에 묻혀있다. 유일하게 비가 길 한 옆에 쓰러져 있었다. 철불은 크고 석판 위에 앉아있으나 버려져 있었다. 중이 ‘원래 고려말 조선시대에 큰 절이었으나 나중에 병화로 인해 흩어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아름다운 궁전과 전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밭이 되어 늙은이들이 경작하고 있어 이 또한 절의 큰 불행입니다.’ 라고 전했다.” 문집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1450년대에는 절이 폐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절의 폐사이유를 병화로 기록하고 있다.²⁰⁾

17)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1, 1991, 298쪽.
 1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九, 全羅道 雲峯縣, 古蹟, “實相寺 舊址在源水寺南五里有高麗僧秀徹寶月之塔”
 19) 『玉溪先生續集』 續集 卷四, “正廟二十二年丁巳十二月日, 嶺南章甫, 以文孝公陞廡事通文來到本道, 答通後, 南原儒林都會于古龍, 以爲湖嶺兩道合議, 然後可以徹疏云, 而走通于慶尙道, 又發通于本道, 道會于實相寺, (中略)即戊午正月十六日也, 兩道會于實相寺.”

그런데 남원과 관련한 병화로 중요한 기록이 있다. 13세기 몽고의 침입이 끝난 이후 14세기 중반을 전후 해안지역에서 왜구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왜구는 일본 해적뿐만 아니라 전략한 지방 호족, 무사 혹은 연해에 거주하는 빈민이나 밀무역집단까지 포함되었다. 이러한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전투 중 1380년의 황산전투가 있었다. 이 황산전투와 관련한 기록은 남원시 운봉읍 회수리에 전해져오는 荒山大捷碑(사적 제104호)가 있다.²⁰⁾

내용은 당시 왜구가 함양사람들을 죽이고 운봉을 불 지르고 지금의 인월(실상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주둔하면서 북쪽으로 진격한다는 소문을 내었다. 이에 이성계가 남원을 출발, 운봉을 넘어 황산에서 적을 무찔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왜구들이 운봉에 불을 지르고 인월에 주둔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당시 실상사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380년의 『晋州靑谷寺記』에는 “洪武十三年實相長老尙聰 刵建 聰之號는 慧庵이요 階는 大禪師니 太古和尚의 法嗣로 實相寺興天寺松廣寺를 역임하니라”로 기록되어있다.²¹⁾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상충화상이 1380년 75세였으므로 실상사 주지를 역임했던 시기를 30세 정도로 추정하여도 1350~1360년간에는 실상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철보월화상을 고려시대의 승려로 보고 있는 것은 고려시대 증창했다는 보월화상과도 일치하고 있다. 실제 수철보월화상의 사망 시기는 913년, 즉 통일신라 진성여왕 7년이다. 고려승려로 본다는 것은 당시 수철화상능가보월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오역으로 인해 고려승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김영수의 사적기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사적에서는 1468년에 폐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운봉전투 이후 점차로 실상사가 쇠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15세기 중반에는 완전히 폐사가 되었을 것으로

20) 『靑溪集』卷四 頭流山紀行錄(上略)尋實相寺舊址. 寺廢已百年. 頽垣破礎. 埋沒荊榛間. 唯殘碑橫臥路側. 鐵佛巍然坐石床而已. 僧云. 此是麗朝所創大伽藍也. 後爲兵火所蕩. 昔時琳宮珠殿. 今爲田翁野叟耕種之地. 此亦山家之不幸. 而盛衰興廢. 雖金仙不能免也.”

21) 황산대첩비는 고려말에 도순찰사였던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군을 무찌른 사실을 기록한 승전비이다. 황산대첩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싸움으로, 당시의 승리 사실을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조선 선조 10년(1577)에 대첩비를 세우게 되었다. 비석이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비각·별장청 등의 건물을 지어 비석을 보호하도록 하였으나, 1945년 일본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어 파편만 남게 되었다. 지금의 비석은 1957년에 다시 만들어 세운 것이다. 1973년에 비석이 보관되어 있는 비전·홍살문·삼문·담장, 그리고 부속건물들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이곳은 “남원 荒山大捷碑址”로 지정되어있다.

22) 김영수, 앞의 논문 108호, 1979, 22쪽. 청곡사 홈페이지에는 이 시기를 139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추정된다. 이후 실상사의 역사에 관해서는 김영수가 남긴 사적기에 의해, 1679년에 백장사의 화재로 인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실상사 옛터에 대한 재건이 제기되었으며 1690년에 침어조사와 승려 300인이 실상사 중건을 상소하여 대적광전, 장육전 등 건물 36동을 건립하여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중창역사가 이루어졌다. 1821년에도 의암대사에 의해 불사가 있었으며 1881년에는 월송선사가 중창하여 대가람을 이루었다. 1883년(고종20)에 양재목 등 유생들이 승려들을 몰아내고 실상사를 차지하고자 방화를 하여 크게 손실을 보았다. 이듬해 월송선사가 다시 재건하였지만 그 사세는 이전보다 못하였다.²³⁾

조선후기의 또 다른 기록으로 『湖南邑誌』가 있다. 雲城條가 따로 소개되는데 실상사의 기록은 없고 지도에서만 우측에 실상사란 이름이 백장암, 청련암과 같이 확인된다.²⁴⁾

전북 남원 실상사 극락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전기 15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원래 아미타삼존불의 본존불로 조성되었다. 극락전 건칠여래상의 좌우협시상은 현재 실상사 경내 보광전의 협시상으로 봉안되어있다.(도 21) 보광전의 본존불은 120cm의 조선후기 목조여래좌상인데,²⁵⁾ 왼쪽 협시불이 건칠로 조성된 178cm의 관음보살입상으로 극락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좌협시불이다. 보



도 21. 실상사 보광전 삼존불상

2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6, 57~58쪽.

24) 『湖南邑誌』, 雲城志卷之一, 1983 영인본, 577쪽.

25) 보광전 본존불은 아미타불로 모셔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아미타불의 수인과 반대로 왼손을 가슴에서 들고 오른손을 무릎에서 들고 있는 모습이다. 120cm의 목조여래좌상은 둔중한 불신에 방형의 얼굴모습에서 조선후기 17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인다. 수인의 형태를 볼 때, 본존불이 아니라 삼존불의 협시불로 모셔졌을 것으로 보이며 상호 및 착의법의 표현에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경 주로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했던 색난(色難)의 작품경향을 보인다.

광전의 우협시불은 건칠관음보살입상과 같은 형상으로 재현된 목조보살입상을 함께 봉안하고 있으며,²⁶⁾ 건칠관음보살입상과 손의 위치만 다른 건칠대세지보살입상이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건칠관음·대세지보살입상은 보관에서 표현된 장식적인 요소와 라마형 정병, 그리고 불신의 전후면에 번잡하게 표현된 영락 등 조선 15세기 보살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15세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²⁷⁾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전남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도 22), 경남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²⁸⁾(도 23)과 상호 및 착의법 그리고 불상 재료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실상사, 죽림사, 쌍계사 세 사찰은 행정구역상



도 22.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116.0cm, 전남 나주 죽림사

도 23.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154.0cm, 경남 하동 쌍계사

으로 전라북도 남원, 전라남도 나주, 경상남도 하동의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실제 거리상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실상사, 죽림사,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신체규격을 비교해보면 크기나 세부 비례에서 거의 동일하다

²⁶⁾ 목조보살입상은 좌협시 건칠보살입상을 그대로 재현하여 만들었고, 1999년 조사를 갔을 때 당시 전 범주사 주지였던 慧光스님께서 만든 불상이라고 전해 들었다. 극락전의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삼존형식으로 봉안되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느 시기부터 단독으로 모셔졌는지, 그리고 협시보살상이 보광전에 봉안되었는지 알 수 없다. 사찰에서는 보광전의 우협시보살상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며 자세한 정황을 알 수 없다.

²⁷⁾ 최은령, 앞의 논문, 2001.

²⁸⁾ 경남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대웅전에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의 우협시상으로 모셔져있다. 현재 아미타여래좌상을 제외한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6구는 보물 제1378호(2003.8.21)로 지정되어있다. 목조삼세불좌상과 사보살입상은 조선 인조17년(1639)에 청헌(淸憲)비구를 비롯한 11명의 화승들에 의해 조성된 작품으로 조선시대 17세기 전반경의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존불의 우측 아미타여래좌상은 얼굴, 신체, 착의형식 등에서 청헌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아미타여래좌상은 X-ray 및 복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칠불상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외부 특징만으로도 실상사 건칠불상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여 건칠불상이라고 판단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표 2. 불상의 신체규격

불상	cm					
	불상높이	육계~턱	귀~귀	귀길이	어깨너비	무릎너비
실상사 건칠상	121.0	43.0	29.0	18.0	50.0	90.0
죽림사 건칠상	115.0	40.5	24.5	20.0	50.0	85.3
쌍계사 건칠상	154.0	47.0	32.0	21.0	7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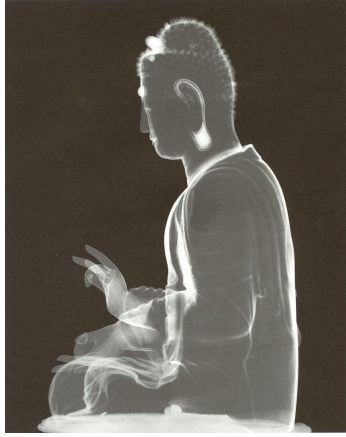
또한 세 건칠불상은 밥그릇을 얹어놓은 것과 같은 둥글고 높은 육계, 뽀족한 나발의 형태, 원형의 중앙계주, 가름하고 둥근 얼굴형, 그리고 이목구비의 표현 등에서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도 24). 착의법의 표현에서는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대의 옷주름선이 간략화되고, 대의 Ω형의 끝자락이 도식적으로 접혀진 모양 등에서도 상당히 닮은 점을 찾을 수 있다. 왼팔 측면에 대의자락 옷주름이 수평으로 등간격을 이룬 점도 주목된다(도 25).



도 24. 불상의 얼굴 비교



도 25. 불상의 옷주름 비교



도 26.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X-ray사진 좌측면

특히 실상사와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 좌상은 제작공정의 세부적인 기법과 재료적인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도 26) 두 건칠 불상은 눈동자와 백호, 계주를 둥근 구슬과 같은 수정류로 끼워 넣어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현존하는 다른 건칠불상에도 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목조나 청동 등 건칠과 다른 소재의 불상에서는 실례를 찾을 수 없다. 불상의 신체에서 돌출되어있는 나발, 손의 경우에도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별도로 만들어 불신에 부착을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나발은 각 개체를 머리와 육체에

촉촉하게 부착하였고, 손은 불신의 소매자락에 끼워서 고정시켰다.²⁹⁾ 양손은 건칠 불이나 목조불에서도 따로 만들어 끼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못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상사와 죽림사 건칠불은 모두 못을 사용하지 않고 고정시킨 것도 같은 방법이다. 두 건칠불상의 귀는 X-ray 사진에서 건칠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건칠불상에서는 나무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두 건칠불상은 제작공정에서 동일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불상의 차이점은 실상사 건칠상은 포와 칠을 겹쳐 만든 건칠층이 8~9매이고, 죽림사 건칠상은 5매로서 건칠층에서 차이를 보인다. 실상사 건칠상은 건칠층에 비해 두꺼운 수치를 보이는데, 이것은 건칠층 위에 목분 혹은 호분의 혼합층을 두껍게 발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불상의 균의를 묶은 띠매듭은 세밀한 조각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므로 죽림사 건칠상은 나무로 만들어 균의 위에 붙였고, 실상사 건칠상은 성형층 표면에 입체적으로 조각하였다. 죽림사 건칠상의 균의 띠매듭 표현이 상대적으로 양감적이다. 그리고 불상의 복장내부는 죽림사 건칠상은 매끄럽게 옷칠을 하였고, 실상사 건칠상은 아무런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포의 눈매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표 3).

²⁹⁾ 나발의 소재는 정확한 성분을 알 수 없고, 손은 손가락의 세부까지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로 조각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표 3. 불상의 재료 및 기법

재료 및 기법 \ 불상	실상사 건칠상	죽림사 건칠상
두부 포층(枚)	12	7
두부 두께(cm)	0.9~1.0	0.5~0.6
눈동자	수정	수정
귀	건칠	건칠
백호, 계주	수정	수정
손	나무	나무
띠매듭	혼합층	나무
불상내부마감	원래상태	옷칠

쌍계사 건칠상은 복장이나 제작기법을 현재 알 수 없지만,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상호와 착의법은 세부적인 모습까지 동일하여 내부의 제작기법도 일치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두 불상은 손금과 발가락 표현까지도 같은 모습 이어서 불상의 제작자 문제를 추측하게 한다.³⁰⁾ 이상과 같이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죽림사, 쌍계사 건칠상과 제작 및 표현기법, 특징에서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소재지 또한 인접한 지역권내에 분포하고 있어, 불상을 제작한 조각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건칠불상은 불상을 제작하는 공정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공력을 필요로 하며, 주요 재료인 고가의 칠이 대량으로 사용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칠에 대한 상황을 문헌기록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칠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많다. 즉, 『經國大典』에서는 각 마을의 漆木 수량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규제한 칠기를 사용한 자에게 형벌의 내용을 명시하는 등 칠의 사용량과 범위를 국가가 규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또한 『朝鮮王朝實錄』에서 조선전기 15세기의 더욱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부체에 칠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며 交戰에 사용하는 화살에도 칠의 부족을 이유로 절반만

30)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엄지와 약지를 맞댄 형식의 수인을 하고 있다.

31) 『經國大典』卷6 工典, 栽植

「諸邑漆木桑木果木條數及楮田莞田箭竹産處成籍漆木桑木果木三年成籍藏於本曹本道本邑栽植培養(下略)」

『經國大典』卷5 刑典, 禁制

「(上略)宗親妻女堂上官母妻女婦有陰新婦外用有屋轎子者寺刹外用眞彩者用花席者用朱漆器者(中略)私占紫草場者並場八十」

칠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²⁾

이처럼 조선전기 15세기 문헌자료를 통해서, 당시 국가가 漆의 사용량과 범위를 엄격히 규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칠불상은 이러한 漆을 재료로 고도의 제작공정을 거쳐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건칠불상의 핵심재료였던 漆은 조선시대에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는데, 칠의 사용처가 다양하였으며 특히 木製器物을 사용하였던 당시 상황에서는 중요한 도료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世宗實錄地理志』에는 각 지역별 土貢, 土宜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칠을 토공하는 군·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³³⁾ 즉, 건칠불상은 재료의 물성으로 인해 칠의 원료산지에서 조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³⁴⁾

마지막으로 건칠불상의 조성에는 고가의 칠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건칠불상은 조선 세종대의 왕실발원으로 조성된 과거사 건칠관음보살좌상과 같이 발원, 시주자의 계층이나 규모에서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을 것이다.³⁴⁾

32) 『太宗實錄』卷19 太宗10年(1410)4月26日壬戌

「禁漆扇司憲府上言全漆繼之物各殿歲進摺扇皆用漆虛費用今後際進上外皆用白質以節國從之」

『世宗實錄』卷53 世宗13年(1431年)7月30日壬辰

「壬辰視事判府事崔閔德啓嘗入朝中國見磨箭接羽之端筋結而漆之我國則不結不漆故兩雪之月(中略)上曰予甚嘉之然當時國用之漆不足奈何閔德曰雖不盡漆半漆之亦可也命下兵曹」

33) 현존하는 건칠불상의 상당수가 전라남도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漆산지와 건칠불상 제작의 연관성을 논자의 선행한 논문에서 논의한 바 있다.

34) 대구 과거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복장내부 벽면에 대시주자로 ‘永膺大君李璵 愼嬪金氏 寧海君璿’을 기록하여 세종대의 왕실가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웅대군 이엄은 세종과 소헌 왕후의 소생으로 세종의 8번째 아들이고, 신빈김씨는 세종의 후궁으로 영해군 이장의 어머니이다. 최은령, 앞의 논문, 2007, 157~159쪽. 또한 장록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은 복장에서 나온 “佛腹藏同發願文”에서 발원자는 白瑱이고, 1395년 조성되어 1407년에 개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록사 건칠관음보살좌상의 조성시기에 대한 의문을 검토한 글에서는 백진이 복장물과 더불어 고가인 건칠불을 조성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제기하였다. 정은우,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문예출판사, 2007, 146~149쪽. 이와 같이 건칠불상의 조성은 고가의 칠을 소요하므로 발원자 및 시주자의 계층이나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 조선시대 전라도, 경상도의 “漆”産地(『世宗實錄地理志』발췌)³⁵⁾

※ 일반적으로 土貢이며, 土宜는 ○, 土宜와 土貢이 함께 해당되는 곳은 ◎으로 표기하였다.

道	大都護府	府	牧	都護府	郡	縣
全羅道		全州			珍山 錦山 古阜	金溝 井邑 秦仁 高山
			羅州		海珍 靈巖 靈光	康津 長平 咸平 南平 高敞 興德 長城
				南原	淳昌	龍潭 求禮 任實 雲峯 長水 茂朱 安城 谷城 光陽
				長興 潭陽 順天	茂珍 寶城 樂安	高興 綾城 昌平 和順 同福 玉果 珍原
慶尙道		慶州		密陽	梁山 蔚山 大邱	慶山 昌寧 彦陽 長鬐 靈山 玄風 迎日 清河
	安東	寧海 順興			醴泉 榮川 永川 青松	義城 禮安 德陽 河基 川奉 化興 新寧 眞寶
			尙州 星州	善山	陝川 草溪 金山	高靈 開寧 龍宮 開慶 知禮
			晉州	昌原	咸陽 昆南	固城 居昌 河東 珍漆 原山 陰山 安嘉 三宜 寧寧 鎮海

³⁵⁾ 최은령, 앞의 논문, 2007, 166~167쪽 (표 7)편집.

V. 맺음말

전라북도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원래 삼존불의 본존불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극락전에 단독으로 모셔져 있다.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의 특징과 제작기법을 통해서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조성배경을 사찰의 연혁과 유사양식의 건칠불상이 전라도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실상사 건칠불상은 상호나 착의법 형식에서 고려 후기 불상양식을 계승하면서 신체비례나 옷주름 표현형식에서 간략화 도식화되는 경향을 보여 조선전기 15세기 여래상과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실상사 극락전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조선전기 15세기에 조성된 작품으로 추정된다.

실상사 건칠불상은 불상의 내부를 비운 탈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고, 포와 칠을 겹쳐 바른 포층의 두께는 1.5cm이며 포수는 8~9매 정도로 확인되었다. 포의 매수와 두께를 비교해보면, 건칠층 위에 목분 혹은 토분을 혼합한 층이 상대적으로 두텁게 발라졌다. 실상사 건칠불상의 제작기법 가운데 특징적인 부분은 눈동자, 계주를 수정류의 재질로 감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건칠불상에서도 확인되는데,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의 금동불이나 목조불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가 없다.

실상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은 전남 나주 죽림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경남 하동 쌍계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재료 및 제작기법, 양식적 특징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점과 동일한 제작자 혹은 제작군에 의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쌍계사 건칠상과는 세부적인 특징까지도 동일하다. 이 세 불상의 공통점과 함께 현재 전라도지역에 분포하는 건칠불상의 수량이 많다. 이러한 점은 칠의 주요 산지와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도지역은 우리나라의 목칠공예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건칠불상은 칠이라는 고가의 재료를 다량으로 사용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발원, 시주자 문제도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실상사 건칠불상은 발원문이 전하지 않아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실상사는 구산선문의 중심사찰로서 과거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 폐사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선종사찰로 권세와 사력을 이어왔을 것이고 건칠불상 제작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한국의 건칠불상은 현재 알려진 20여점의 작품을 살펴볼 때 조성시기와 조성지역, 조성배경 등에서 다른 재질의 불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불상을 만드는 재료적인 면에서, 고려후기에는 금동불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목조불상이 불상의 대다수를 점유하게 된다. 건칠불상은 주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고려에서 조선이라는 왕조의 큰 변화에 따른 불상제작의 여건도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기에 다소 이색적일 수 있는 乾漆技法의 불상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문물』 3권(세종출판사, 2012)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게재함을 밝힌다.

■ 투고일 2013년 2월 4일 | 심사완료일 2013년 2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일 ■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국내>

김영수, 「智異山實相寺事蹟(上)」, 『考古美術』108, 한국미술사학회, 18~26쪽, 1970.

_____, 「智異山實相寺事蹟(下)」, 『考古美術』109, 한국미술사학회, 20~29쪽, 1971.

『湖南邑誌』, 1983.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1, 1991.

진홍섭, 『韓國美術史資料集成(3)』, 一志社, 1996.

권상오, 『漆공예 : 친연칠의 매력과 표현기법』, 조형사, 1997.

대한불교조계종 실상사, 『실상사』, 선우도량출판부, 199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실상사 : 발굴중간보고』, 1999.

최소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연구」, 『강좌미술사』15, 2000.

최은령,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대세지보살입상」, 『동악미술사학』2, 2001.

_____, 「조선초기 건칠불상에 관한 연구 :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건칠대세지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최성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강좌미술사』19, 2002.

문명대, 『한국의 불상조각4 : 高麗·朝鮮 佛教彫刻史 研究 [三昧와 平淡美]』, 2003.

남원시·전북대학교박물관, 『남원문화유적분포지도』, 2004.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後期地方地圖 : 全羅道編(下)』, 200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실상사II : 발굴조사보고서』, 2006.

김광희, 「朝鮮前期 菩薩像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송은석,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조범환, 「신라 하대 洪陟선사의 實相山門 개창과 鐵佛 조성」, 『신라사학보』6, 2006.
-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1)』, 2007.
- 임석규, 「한국 건칠불상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학술세미나 논문집)』, 2007.
- _____, 「한국 乾漆佛像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학술세미나 논문집)』,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 정은우, 『高麗後期 佛教彫刻 研究』, 문예출판사, 2007.
- 최은령, 「한국의 건칠불상 연구 :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불교미술사학』5, 불교미술사학회, 2007.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불상 X-ray 조사보고서 I : 건칠불』, 2008.
- 이희정, 김해 원명사 건칠지장보살좌상에 대해」, 『문물연구』16,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9.
- 임남수, 「淸涼寺 傳藥師如來坐像考」, 『민족문화논총』43, 2009.
- 최선일, 『17세기 彫刻僧朝과 佛像 研究』, 한국연구원, 2009.
- 이희정, 「창원 성주사(聖住寺) 지장전(地藏殿)과 영산전석조불상(靈山殿石造佛像)에 관한 연구」, 『문물연구』18,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10.
- 최주연, 「고려후기 협저보살상 연구 : 남송대 조각양식의 수용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은령, 「한국 건칠불상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국외>

- 久野 建, 『日本の美術-乾漆佛』254, 至文堂, 1987.
- 森下和貴子, 「木心乾漆像の出現と漆」, 『佛教藝術』255, 2001.
- 최은령, 「韓國における乾漆佛像 : 全羅南道竹林寺藏の乾漆阿彌陀如來坐像について」, 『デアルテ』19, 九州藝術學會, 2003.
- 鄭至娟, 「韓國の全羅道羅州·南原地域の乾漆仏について」, 『年報2008』, 東京藝術大學 美術研究科 文化財保存學 保存修復彫刻研究室,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in Namwon, Jeonbuk

Choi, Eun-Ryung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is now placed in Hall of the Amitabha Buddha alone. This image had been recognized as wooden Buddha image in the past. But in a X-ray examination, it was known that inside of the image is empty and the image was made of cloth and lacquer. let's see its manufacturing technique. Central Geaju, white hair, and eyes were put with modifier. Both hands were made in wood. Layer of dry lacquer shown on X-ray photo is head part(頭部) 12 layers; for its thickness, head 0.9~1.0cm, body 0.8~1.0cm. Robe sleeve over neck nape, clothes wrinkle lines on arm and leg of the image were expressed very thick. After building form with dry lacquer layer, lacquer, wooden powder, or soil powder were mixed and then added to express abundant outer appearance. As a result of identifying through hole for preservation inside breast(腹藏孔), inside of the image is empty and texture and unevenness of clothes wrinkle lines for hemp cloth on surface of inside could be easily observed. Surface treatment of inside was not done with other materials, and scratched track and clay between narrow, dense wrinkle lines remained partially.

Let's see characteristics of iconography for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The body is slim, and volume of breast is emphasized, and the image is in the state of tightened sitting posture.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s of the buddha's body shows thin, round shape; ear, eye, mouth, and nose are soft; Fleshy protuberance is high; it has round, central Geaju. For clothing method, jacket(偏衫) is worn inside and over it, robe(大衣) is put on - this is called revised shoulder

type(變形通肩式). And underwear(內衣) and Gun clothe(裙衣) are put on, and strip knot is bound to Gun clothe. Especially, dressed appearance seems like putting on very thick clothes. The clothes wrinkles are three-dimensional and natural. In the end part and side of robe in inverted triangle in the front of left arm, clothes wrinkle lines in three layers were expressed in a graphic way. Main characteristics shown on face, body of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expression based on clothing method are very similar to Buddha images in the 14th century of later Goryo and the 15th century of first half of Chosun. Compared to Buddha images of later Goryo,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shows more formalization and graphing of clothes wrinkle so that the image can be presumed as work in the 15th century of first half of Chosun.

For foundation background of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it is guessed that the image was built before ruin of the temple in 1468 based on records of temple history that during repeated reconstruction and decay in Chosun, the temple was ruined in 1468; in 1679, there was a movement for reconstruction. In characteristics in style of Buddha image, the image corresponds to the 15th century of first half of Chosun.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shows common points in material, manufacturing technique, and characteristics in style with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Jukrim temple in Naju, Jeonnam,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sanggea temple in Hadong, Gyeongnam. This implies possibility of same producer(製作者) or same producing group along with building time. Especially, the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ilsang temple shows same specific characteristics as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with dry lacquer in Ssanggea temple. Along with common points of three Buddha images, there exist a number of Buddha images with dry lacquer in Jeolla areas. This can be related to major production center of lacquer to date, Jeolla areas centered on Namwon are famous for wood lacquer craft.

Silsang temple is embracing long history as one of Nine Mountains school of Sŏn. After Im-jin invasion, there had been vanishment and reconstruction of halls throughout the monastery and now academic excavation is under progress from 1996. So it is expected that Silsang temple can recover its old appearance of the times of foundation for right preservation and recovery of Buddhist cultural property.

Key Words : Silsang temple, Buddha image with dry lacquer, Seated image of Amitābha Buddha, Jeollado, lacquer, hemp cloth, preservation inside breast, filling inside, reconstruction